



미 증시, 부채한도 합의에 따른 디플트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

미국 증시 리뷰 및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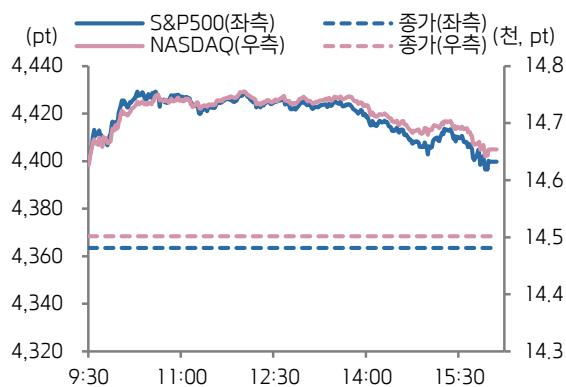
7 일(목) 미국 3 대 증시는 주간 실업지표 호조에 따른 8 일(금) 비농업부문 고용 개선 기대감 속 미 정치권의 부채한도 일시 증액 합의에 따른 10 월 18 일 디플트 우려가 완화된 영향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1.0%, S&P500 +0.8%, 나스닥 +1.1%). 업종별로는 유틸리티(-0.5%)를 제외한 경기소비재(+1.5%), 소재(+1.4%), 헬스케어(+1.2%), 기술(+0.9%) 등 전업종이 강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전거래일 공화당의 부채한도 유예 제안에 합의를 했다고 밝힘. 현재 상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통과될 시 미국의 부채한도는 12 월 3 일까지 28.9 조달러(기준 한도 28.4 조달러)로 0.5 조달러 일시적인 증액이 가능해짐. 이로 인해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었던 10 월 18 일 미국의 디플트 우려는 해소된 모습.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32.6 만건으로 전주(36.4 만건) 및 예상치(34.5 만건)을 모두 하회. 연속실업수당청구건수도 271.4 만건으로 전주(281.1 만건) 및 예상치(278.0 만건)을 모두 하회하며 2020 년 3 월 14 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 고용시장 회복세가 견조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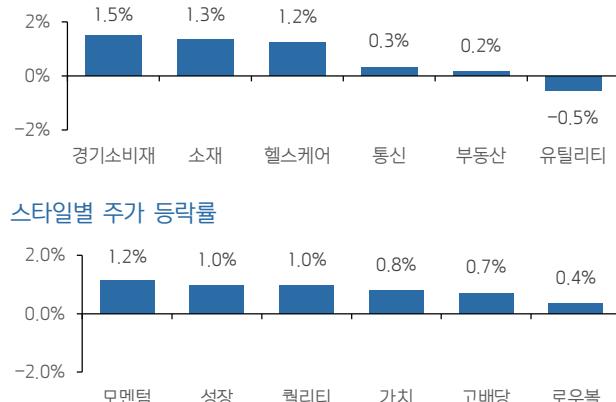
9 월 ECB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의하면, 유로존 내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으나, 일시적인 요인들이 주도하는 인플레 상승 성격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긴축 대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ECB 위원들은 진단. 또한 판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은 직전 2 개 분기에 비해 느린 속도로 매입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호적인 금융환경을 지속시킬 것으로 평가.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399.76	+0.83%	USD/KRW	1,190.75	-0.16%
NASDAQ	14,654.02	+1.05%	달러 지수	94.21	-0.06%
다우	34,754.94	+0.98%	EUR/USD	1.16	+0.03%
VIX	19.54	-6.95%	USD/CNH	6.45	+0.01%
러셀 2000	2,250.09	+1.59%	USD/JPY	111.62	-0.01%
필라. 반도체	3,274.48	+1.1%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509.79	-0.26%	국고채 3년	1.690	-3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371	-2.6bp
Eurostoxx50	4,098.34	+2.14%	미국 국채 2년	0.306	+1.2bp
MSCI 전세계 지수	717.83	+1.15%	미국 국채 10년	1.573	+5.2bp
MSCI DM 지수	3,046.57	+1.02%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53.28	+2.13%	WTI	78.3	+1.12%
MSCI 한국 ETF	78.48	+1.68%	금	1759.2	-0.1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68%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95%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37%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92.1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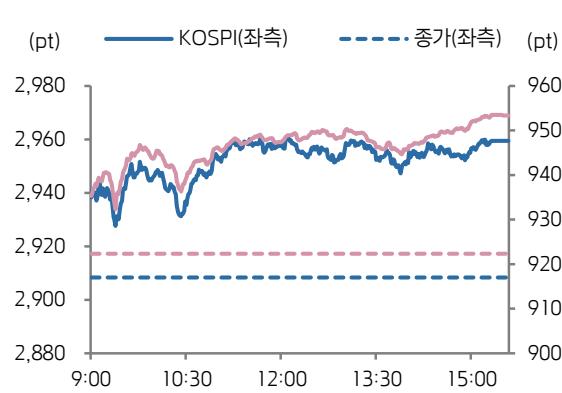
1. 삼성전자와 LG 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2. 장기 휴장 후 재개하는 중국 증시의 급변 가능성
3. 미국 자동차주 동반강세가 국내 자동차주에게 훈풍으로 작용할지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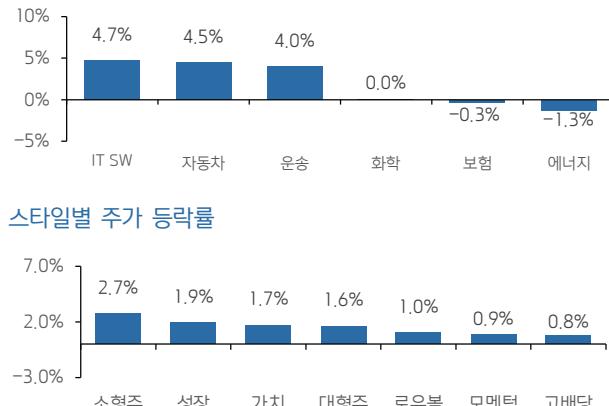
미 상원에서의 부채한도 일시 증액 합의로 미국의 디플트 우려는 일시적으로 해소된 상황. 12 월 3 일까지 부채한도를 연장한 만큼, 11~12 월 중 다시 한번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음. 이번 사태를 통해 시장참여자들도 부채한도 관련 정치 노이즈에 내성 및 학습효과가 생겼을 것으로 판단. 또한 10~11 월은 3 분기 실적시즌이 본격 진행되는 시기. 실적시즌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참여자들이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시에는 최근처럼 “부채한도 협상 난항에 따른 미국의 디플트 가능성”이 유발하는 시장 불안은 제한적일 전망. 원자재 가격 급등세도 진정 됨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완화 단계에 진입하는 등 9 월 말 이후 시장 조정을 유발했던 악재들이 점차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모습. 물론 고 인플레이션 문제는 공급 부족, 물류 대란, 전력난 등 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지속적으로 시장이 감당해야 하는 변수이지만, 이에 대한 민감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질 것으로 전망.

전거래일에 급 반등세에 나서면서 지난 6 일(수) 폭락분을 하루 만에 만회했던 국내 증시는 금일에도 미국 정치 불확실성 완화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또한 미국 증시에서 GM(+4.7%), 포드(+5.5%) 등 자동차주들이 GM 의 전기차 및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 발표가 호재로 작용함에 따라 동반 강세를 보였음을 감안 시, 그동안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었던 국내 자동차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다만, 금일 발표하는 국내 대표 주력 기업인 삼성전자(영업이익 컨센서스 15 조원대 중후반)와 LG 전자(영업이익 컨센서스 1 조원 초반)의 3 분기 잠정실적 결과, 장기 휴장 후 재개하는 중국 증시의 변화에 따라 전반적인 국내 증시의 장중 상승 탄력이 급변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